

# '진안고원물' 신규 입점 결정

### 운영위원회 열고 잡곡·사인머스켓·표고버섯 등 70여개 농특산물 선정

진안군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물'의 개점을 앞두고 제1차 입점 제품을 선정했다.

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진안고원물 운영위원회'를 열고 70여개 농특산물의 신규 입점을 결정했다.

군은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입점심사를 통해 올해 모두 100여종의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을 선정해 진안고원물을 개점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입점평가 모집 공고와 6월 사업설명회를 통해 입점 신청을 받았다.

지난 5~6월 2개월 간 가진 1차 집중신청 기간에는 관내 31개 농가 및 업체 등에서 90여개 제품 신청이 이어지는 등 관심 있는 농가의 문의가 쇄도했다.

입점심사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필수서류 제출, 해설 및 GAP(우수농산물관리인증) 등 품질인증, 홍보능력과 경력, 진안산 원료 비율, 규격화 등 총 8가지 기준과 입점 적합성 등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까다롭게 이뤄졌다.

입점심사를 맡은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인 농촌경제국장(위원장)과 농축산



진안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진안고원물 운영위원회'를 열고 70여개 농특산물의 신규 입점을 결정했다.

유통과장(위원)을 비롯해 모집공고를 통해 위촉한 관내 농특산물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를 통하여 입점이 결정된 농특산물은 잡곡, 유기농 사인머스켓, 표고버섯, 딸기, 오미자청, 복분자청, 생강청, 부귀농협 마이산 김치, 누룽지, 진안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홍삼제품 등이다.

'진안고원물'은 군이 직접 운영 예정인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로

입점하는 제품은 잔류농약검사, 진안산 원료의 사용 비율 등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거친 제품만 입점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정직한 농가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0월 전 오픈 예정인 진안고원물 입점 농가에게는 상세페이지 제작, 택배비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각종 홍보와 이벤트 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2차 집중신청기간은 8월 중순까지"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폭염 속 안전 영농실현 집중

### 무주군, 농작물 관리요령·농업인 건강 유의 당부

무주군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농작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농업인들의 건강을 살펴야 안전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비는 물 흘러대기로 온 도상수를 억제해야 하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먹노린재·입집무늬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예방과 방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발작물의 경우 관수를 실시해 토양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쪼·풀·퇴비로 토양을 피복해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

시설원예작물 재배 시 갑작스런 기온 상승은 열과 등 생리장해를 일으키고 당도가 떨어지며 응애, 진딧물 등 각종 해충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하우스 내 토양에 적정 수분을 유지하고, 차광막을 설치해 한낮에 직사광

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확은 오전 또는 오후 늦게 한다.

과수의 경우 관수 및 배수를 적절히 해 토양 내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고 과실 물리기로 강한 직사광선에 의한 햇빛 데임을 예방하며, 일소피해(햇빛 데인현상)가 많은 과수원에서는 미세 살수를 하거나 탄산칼슘을 살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 및 하우스 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고혈압·심장병·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나 고령의 농업인은 폭염 때 농사일을 무조건 그만두는 것이 좋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고,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셔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소통의시간 가져

무주군은 지난 14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과 무주군 내 주요 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마을별 소개를 통한 귀농·귀촌 지역 마티 알아보기와 토지 빈집 정보공유 등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자리다.

이날 실천면 구산마을, 적상면 신대마을, 안성면 금명마을을 찾았다. 마을주민과 선배 귀농·귀촌인들로부터 각 마을 소개와 함께 토지 및 영농 정보 등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군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무주군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청년 4H회 만남의 장

### 농업기술 노하우 공유·화합 시간 가져

무주군 청년 4H회 만남의 장이 15일 무주읍 국민체육센터와 실천면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4H역사 및 이념을 교육하고 선·후배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년 신입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농업 실천 등을 실천하겠다는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을 낭독, 상호 의지를 북돋웠다.

또 지역과 국가를 위해 머리는 명석하게, 마음은 충성하며, 손은 위대하게 봉사하고 건강은 더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한다는 4H서약을 제창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리더십 강화를 위한 특별 강의와 도전 골든 벨 참여를 통해 회

원 간 화합의 계기를 만들고 4H회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4H 신입회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큰 힘이 된다"며 "4H회가 우리 농업·농촌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더 멀리 더 이르게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 농산물 시장개방, 기술력과 자원의 한계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실이 녹록치 않기에 청년 회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우규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군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진안군 학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는 20일 기

획홍보실, 행정복지국, 보건소에 이어 21일 농촌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2일 안전환경국 순으로 진행된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제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창열 진안부군수, 산림소득사업 현장 방문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15일 고소득 산림작목 창출을 위한 여름두릅 특화 재배 현장 등 주요 산림소득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진안군 임산물 재배 및 생산현황 분석을 통해 주력품목으로 선정된 여름두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김 부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여름 두릅은 여름에도 수확이 가능한 두릅이라 불려진 이름으로, 참두릅 중 최고의 품질과 높은 수확량을 지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천근성 산림작

물로, 5월에서 10월까지 기존 두릅보다 10배 이상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군은 최근 14개소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11개소는 완료,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관내 우수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임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진안고원 청정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청정임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연차별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도농 일손 교류 프로젝트 추진 만전

무주군이 '도농 일손 교류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농 일손 교류 프로젝트'는 도시민들의 일자리를 충족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3일에는 무주군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최일식 센터장과 서울시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푸마시 김용현 대표가 만나 도농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농촌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무주군 농협인력증강센터 등



과 함께 농·산촌형 일자리를 탐색하는 한편, 부족한 농촌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